우암학원 창학67주년
WCC 세계적인 전문대학 선정!
전남과학대학교
CHUNNAM TECHNO UNIVERSITY

光州日報

www.tphtoyota.com
BEYOND POSSIBLE. BEYOND PLEASURE.
SMART HYBRID 4th GENERATION PRIUS
TOYOTA
광주전시장 062-371-8383 | 전주전시장 063-273-3222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720호 1판 (음력 2월 18일) 2018년 4월 3일 화요일

기념촬영 뒷줄에 선 김정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남측 예술단 공연 '봄이 온다'를 관람한 뒤 남측 예술단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뒷줄에 서서 사진 촬영에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관련기사 2·8·19면 /연합뉴스

광주시 민간공원 2단계 개발 강행

"6개 공원 이달중 공고"…시민단체·전문가 등 반발

광주시가 현 윤장현 광주시장의 6·13 지방선거 출마로 인해 권한대행체제에 들어가는 4월중에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공고를 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의 신규 정책이나 지침 변경, 도시공원에 대한 시 예산 투입 계획 공표 등 주변 여건의 변화나 민관거버넌스 위원들의 의견과는 관계 없이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민관거버넌스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시기적으로 지방선거 일정과 맞물리면서 지역 내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2일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대비 민간공원 2단계 특례사업 주민설명회'를 열고 "4월 내에 중앙·일곡·중외·송정·신용(운암)·운암산 공원중앙(영산강대상공원 제외) 등 6개 공원에 대한 사업 제안서 접수 안내 공고를 내겠다"고 밝혔다. 공고에 따라 오는 9월 제안서 평가회를 개최해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날 참석한 시민사회단체, 주민 등은 이 같은 시의 계획에 반대 의견을 내놨다. 시가 2020년 7월 1일 일몰제 도입 시기에 맞춘 행정절차만 염두에 두면서, 공원 보존과 시민 이용 편의 증진이라는 핵심 사안을 놓쳤다는 비판이다. 국고 지원이나 지방채 발행 등을 통한 공공자금의 투입, 공기업 참여를 통한 공적 개발 등의 가능성을 외면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신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언제 확정될 지, 그 내용이 보탬이 될 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시는 1단계 사업 공고도 서둘러냈다가 국토부의 변경 지침을 반영하지 못하는 등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속도를 내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지역 내 중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생태국 내 공원녹지과가 사업 전체를 책임지는 구조인데다 담당자의 잦은 인사 이동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강성욱씨는 "용역업체가 아니라 시 담당자가 답변해야 할 사항"이라며 "공원에 아파트만 들어서게 하는 이 사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민주 광역단체장 경선 결선투표 전격 도입

최고위 만장일치 결정…1회 한해 정책 토론회도 갖기로

광주시장·전남지사 경선전 지각변동…후보들 셈법 분주

더불어민주당이 2일 6·1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경선에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광주시장, 전남지사 경선전에도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오후 1시 추미애 대표가 긴급 소집한 최고위에서 광역단체장 경선후보자에 한해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방선거 시행세칙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관련기사 3면〉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결선투표제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한해 모든 지역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단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최고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결선투표 방법은 본 경선과 동일하며 (본 경선에서) 과반 이상 지지를 확보한 후보가 없다면 24시간 이내 실시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초 경선 과열과 짧은 일정 등을 이유로 결선투표에 부정적이었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에 결선투표제가 포함된데다 각 후보들의 요구가 이어짐에 따라 전격 도입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권리당원 조사와 안심번호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해 광역단체장 후보를 결정한다. 민주당은 또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전 경선을 완료한다는 원칙은 이어가기로 했으며, 시·도지사 경선 중 1회에 한해 정책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기본적으로 당사 2층 정책토론회가 가능한 '세팅(상황)'이 될 것"이라며 "TV 토론은 비용이 발생해 후보자간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결선투표제 도입에 따라 민주당 광주시장 및 전남지사 후보 경선도 피 말리는 경쟁 구도가 형성될 전망이다. 현재 전반적인 판세 등을 고려하면 본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과반 지지를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경선에서 모두 결선투표가 실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권리당원 여론조사가 전체 결과의 50%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결선투표에 참여하지 못한 후보들이 2위 후보에 표를 몰아준다면 1위 후보가 뒤바뀌는 등 본경선 결과가 달라질 수 도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장 후보 경선은 이용섭 예비 후보에 맞서고 있는 경쟁 예비후보들 진영의 권리당원 표심 결집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전남지사 후보 경선전은 본경선 결과에 따라 구도가 달라질 전망이다. 일단 장만채 예비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할 경우, 전남 서부를 기반으로 하는 김영록·신정훈 후보의 공조가 예상된다. 반면, 김영록, 신정훈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할 경우, 장만채 예비후보의 선택이 최대 변수로 부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후보 진영에서는 결선투표를 놓고 치열한 머리 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지역이 아니라 광역단체 경선이라는 점에서 결선투표가 실시된다 해도 결과는 전반적인 민심의 흐름을 넘어설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전체적인 경선 구도가 치열한 경쟁 양상을 보일 경우, 결선투표는 최종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1위 후보와 경쟁 후보들의 차이가 크다면 결선투표의 위력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전남청년 月소득·희망소득 差 140만원

33% 부채 있고 30% "전남 떠나겠다"

전남 청년들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0.5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들의 월평균 소득과 희망 소득의 격차가 140만원으로 조사돼 큰 괴리를 보였다.

2일 전남도가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한 청년종합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남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60.5점이었다. 분야별 만족도는 일자리(57점), 교육(55점), 복지(53.2점), 문화·여가(52.7점), 경제(52점) 순이었다.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여건으로는 화목한 가정(29.4%), 재산·경제력(24.0%), 건강(13.2%), 자아성취(9.5%) 등을 꼽았다. 여성(56.8점)보다는 남성(58.2점)이, 미혼(56점)보다는 기혼(61.5점)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응답자들의 실제 월평균 소득은 175만원이었지만 희망하는 적정 월평균 소득 316만원으로 141만원 차이를 보였다.

부채가 있다는 응답자는 33.4%였다. 부동산 대출(38.5%), 학자금 대출(26.6%), 생활비(15.1%) 등이 원인이었다.

응답자의 55.3%는 대학 진학 연령인 20세에 전남을 떠났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으로 다시 돌아온 시기는 24세와 28세(각각 21.4%)로 계기는 취업(44.8%)과 진학(24.8%), 결혼(19.6%)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3명가량(28.4%)은 '전남을 떠나겠다'고 응답했다. 이유는 더 나은 일자리(37.1%), 더 나은 문화·여가 생활(18.6%), 더 나은 자녀교육환경(11.7%)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전남에 사는 만18~39세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 9~21일 대면 설문조사, 집단 심층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남도는 용역 결과를 시·군, 유관기관 등과 공유해 정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HNT 하나투어 HanaPack
무안 ✈ 다낭·방콕·오사카 하늘길이 활짝!
4월30일부터 제주항공 정규편 신규 취항! 하나투어에서 준비한 취항 특가 지금 떠나기 딱 좋습니다!

무안 ↔ 방콕 주4회 운항
3박5일 (수/목) 4박6일 (토/일)
하나팩 AAPF01
방콕/파타야 5일,6일
3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40 / 선택경비 있음
#산호섬 즐기기 #다양한 특식

무안 ↔ 다낭 주2회 운항
3박4일 (토) 4박5일 (화)
하나팩 AVPF13
다낭/호이안/후에 4일,5일
59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40~ / 선택경비 있음
#휴양과 관광 오감만족 #힐링여행지

무안 ↔ 오사카 주8회 운항
3박4일(월/목/금/일) 2박3일(수/금)
하나팩 JOPF01
오사카/교토/나라 3일,4일
64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없음 / 선택경비 있음
#쇼핑,관광,먹거리 천국 #다양한 특식
안심결제 캠페인 | Fair Price 공정한 가격, 즐거운 여행
하나투어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 062)228-1199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쟁보험료,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객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 참조)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업자 등록번호 제26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주)하나투어 ■최소 출발인원 10명 기준/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훼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객칭찬/불편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영업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의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음.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미 선택 시 대체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 참조.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현황 | ●여행 유의 ●여행 자제 ●철수 권고 ●여행 금지 | 본 상품은 프리미엄로드샵 [광주충장점]에서 판매하고 실제 여행주관은 (주)하나투어가 담당합니다.
여행, 하나면 돼! 하나투어앱에서 확인하세요.
| 런던증권거래소 상장기업 |